

“백신·치료제 기대... ‘마음의 백신’으로 새해 맞는다”



2020 경자년 1년 내내 지속된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인물은 우리의 의료진이다. 사진은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 영웅’ 의료진 새 희망을 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최전선에서 의료진과 보건당국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오로지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비상체계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피로도 나날이 누적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백신과 치료제 보급에 대한 기대로 바이러스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오늘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별진료소...선제 대응으로 맞춤형 진화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선별진료소’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 검체 채취를 받게 된다.

선별진료소는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말 설치돼 현재 전국적으로 6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광주·전남지역도 코로나 확산으로 방역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자치구 내 보건소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초 이후 현재 확진자 수가 1천여명이 넘어선 10개월여 동안 3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코로나 발생 초기 해외입국자와 지역 내 슈퍼 전파자 접촉자 파악에 집중했던 보건당국은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맞춤형 검사 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른 선별진료소 변화도 꾀했다.

특히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주목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초 서구 염주체육관 주차장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수백여명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코로나와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는 선별진료소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비상근무도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하루에 많게는 수백여

◇시 보건환경연구원...신속·정확한 진단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식품·환경·동물 분야 등 지역 내 사회적 재난 요인의 선제적 검사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에 연구원도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다. 검체에 대한 코로나 음성·양성 판별을 담당하는 역할로 빠르고 정확한 정밀 검사와 신중한 실험이 요구된다.

선별진료소 등에서 도착한 검체는 생물안전 밀폐 실험실에서 투입된 연구진에 의해 1차 소독, 의뢰서 확인작업, 유전자 핵산추출을 위한 시약 제조, 생물 안전 작업대를 거친 후 정밀 검사가 이뤄진다.

산 차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재근 연구원장은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해 방어 효과가 발생하고, 확진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검사 결과를 내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정병동, 협진 의료체계 강화

지역 의료당국도 코로나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은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입원환자 면회를 전면 제한했다. 병동 출입구도 1곳씩만 개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쇄했으며, 의료진과 병원 내 환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도 이뤄졌다.

지난해 3월에는 지역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코로나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으로 의료봉사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또 대구 경증 환자들이 광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후 완치해 의료진에 고마움을 표하는 등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체 정신이 발현되기도 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생명의 탄생도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전남대병원은 호남지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임신부 분만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처럼 코로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격려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덕분에’ 지역사회는 어제보다 건강한 오늘을 꿈꿀 수 있다.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하루빨리 의료진이 방호복과 마스크를 벗고 시민과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오승지기자

‘코로나19 진료실에서’

강승지 빛고을전남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진료실에 들어온 60대 여자 환자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는 질문에 말을 잘 잊지 못하십니다.

원래 운영하던 식당은 ‘코로나 식당’으로 소문이 나서 가게를 정리할 예정이고, 자가격리하던 딸은 이 일로 직장을 그만뒀다. 혹시 딸에게 영향이 있을까 봐 집에 돌아가서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고, 밥도 따로 먹고, 대화도 없이 지낸다.

퇴원한 날 상점에 들렀더니, 주변 상인들이 확진자가 돌아다니는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했다. 10년 넘게 이웃하여 장사하고 살면서 모두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였다고 한다.

그 후로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겁나서 집 밖은 전혀 가지 않았다고 울먹이신다. 나도 따라 목이 메었다.

코로나19 환자가 격리 해제된 후에 겪는 이런 어려움은 이 환자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외래 진료실에 오는 격리해제 된 많은 환자가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

환자는 입원하면 진찰과 기본적인 혈액검사·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는데, 입원한 환자 대부분은 격리 초기에 불안감과 불편을 겪는다. 2-3일이 지나면 대체로 적응하지만, 심한 적응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상이 부족하고, 같은 감염 환자끼리는 한 병실을 써도 의학적 위험이 없다는 것을 누차 설명해도 1인병실을 달라며 다른 일이 마비될 정도로 호출을 하는 환자도 있고, 따뜻한 물이 아니면 안된다고 넣어드린 생수병을 집어던지기도 한다.

이런 환자의 요구를 직접 감당하는 것은 모두 병동 간호사들이다. 환자처치를 하고 방호복을 벗고 나오는 간호사의 주무룩은 항상 맘에 흠뻑 젖어 있다.

고생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는데, 뭐라고 해야 격려와 위로가 될지 막막하다. 진료인력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도 병상 배정 요청은 계속 온다. 인력부족으로 오늘은 어렵겠다고 말하려고 병상배정팀에 전화를 걸었더니, “요양원에 확진된 환자가 남아 있는데,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아직 밥도 못 드셨다”고 본인도 속이 탄다며 하소연을 하신다.

할 말이 없다.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고하신다는 말이라도 건넬어야 했나 뒤늦게 후회했다.

결국, 코로나19는 어떤 식으로든 끝날 것이다.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인구의 1-3%가 사망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유행은 종식되었다. 의료진, 방역당국, 시민들 모두 애쓰고 있으니 우리는 1918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이 유행을 끝낼 것이다.

감염되어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환자이므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환자와 주변인들도 일상복귀와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방역과 치료 주체들도 우리가 한 방향으로 뛰고 있음을 자주 상기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 위로, 격려를 무기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통과하기를 바란다.

2021 신축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안 좋았던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가슴에 담아 따뜻한 올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S.L.T
Silver Land Treadmill
www.slhealth.co.kr

웨이트가구 광주전남지사
헬스 & 실버랜드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 (주월동)
☎062)651-9944~3